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4년 8월 18일(주일) 제1504호

순을 통해 성숙하는 온누리!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동체별 예배
사르밧 프로젝트, 하비스트 집회, 제4차 로잔대회 개최

온누리공동체가 개강예배와 함께 더 풍성한 하반기를 보낸다.

2024 온누리공동체가 하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오는 8월 22일(목) 관악금천공동체를 시작으로 9월 13일(금) 중종로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강예배를 드린다**(일정 〈표〉 참고)**.

온누리공동체는 2024 하반기 순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 순원들과 함께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 예배 등에 더욱 집중하고 힘쓸 예정이다. 그 포문은 모든 순원이 동참하는 추수감사절 '사르밧프로젝트'가 연다. 8월 24일과 25일 진행된다.

9월 15~17일에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 연합집회 '하비스트'를 개최한다. 하비스트는 이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연합예배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막 오른다.

10월 26일부터는 '2024 엔젤트리' 대상자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공동체, 이웃, 가족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모집해서 선물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10월 5~6일 온누리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 11월 30일 임직식, 12월 21~22일 성탄주일, 25일 성탄절, 31일 송구영신예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8월 22일(목)	관악금천	두란노홀	18:00
8월 27일(화)	강촌	두란노홀	18:00
8월 27일(화)	동대문중랑	한동홀	18:00
8월 27일(화)	서빙고	시온홀	18:00
8월 29일(목)	노원	한동홀	18:00
8월 29일(목)	여의도	비전홀	18:00
8월 30일(금)	가정사역	두란노홀	18:00
8월 30일(금)	서대문	한동홀	18:00
8월 30일(금)	김포	비전홀	18:00
8월 30일(금)	신용산	시온홀	18:00
9월 1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8:00
9월 1일(일)	특초	순형홀	17:00
9월 3일(화)	강서	두란노홀	18:00
9월 3일(화)	성북	한동홀	18:00
9월 3일(화)	양천	비전홀	18:00
9월 3일(화)	영등포구로	시온홀	18:00
9월 5일(목)	성동광진	두란노홀	18:00
9월 5일(목)	이수	한동홀	18:00
9월 5일(목)	마포	비전홀	18:00
9월 6일(금)	한강	두란노홀	18:00
9월 6일(금)	OCC	한동홀	18:00
9월 6일(금)	동작	비전홀	18:00
9월 6일(금)	이촌	시온홀	18:00
9월 6일(금)	찬양사역	외부	18:00
9월 6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15:00
9월 7일(토)	용산	두란노홀	17:00
9월 7일(토)	일산파주	일산파주비전센터	18:00
9월 7일(토)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6:00
9월 13일(금)	중종로	두란노홀	18:00

양 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8월 27일(화)	양재A	화평홀	19:30
8월 29일(목)	강남B	화평홀	20:00
8월 29일(목)	강남C	드림홀	19:30
8월 30일(금)	서초D	온유홀	19:30
8월 30일(금)	경기A	드림홀	20:00
8월 31일(토)	송파B	화평홀	17:00
9월 3일(화)	강남D	화평홀	20:00
9월 3일(화)	강남A	온유홀	19:30
9월 3일(화)	분당A	드림홀	19:30
9월 3일(화)	서초B	기쁨홀	19:30
9월 5일(목)	도곡	화평홀	19:30
9월 5일(목)	서초C	드림홀	20:00
9월 6일(금)	분당B	화평홀	19:30
9월 6일(금)	POINT5	온유홀	20:00
9월 6일(금)	송파A	드림홀	19:30
9월 6일(금)	강남E	도곡 기쁨홀	19:30
9월 7일(토)	과천의왕	화평홀	17:00
9월 7일(토)	서초A	드림홀	17:00
9월 8일(일)	푸른누리	도곡 기쁨홀	13:30
9월 8일(일)	하모니	개별 공지	개별 공지

캠퍼스			
9월 6일(금)	부천 믿음	본당	20:00
9월 6일(금)	부천 소망	비전홀	20:00
9월 7일(토)	부천 사랑	비전홀	16:00
9월 7일(토)	부천 희락	비전홀	10:00
9월 7일(토)	부천 화평	비전홀	19:00
추후공지	수원 동누리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수원 서누리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수원 남누리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수원 북누리	추후공지	추후공지
9월 6일(금)	대전 연합	본당	19:30
9월 7일(토)	남양주 연합	본당	17:00
9월 8일(일)	평택 연합	본당	16:00
9월 4일(수)	인천 연합	본당	20:00
9월 6일(금)	강동 동서울A	본당	20:00
9월 5일(목)	강동 동서울B	본당	20:00
9월 6일(금)	강동 동서울C	사랑홀	20:00
9월 8일(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14:00
9월 6일(금)	영종 연합	백향목홀	19:30

제4차 로잔대회 한 달 앞으로!

9월 28일까지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 오른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가 9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나 아노키(Anoki) 기도 앱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중보기도하면 된다. '한 끼 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 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여름 아웃리치 벌써 종반(終盤)!

8월 31일까지 아웃리치 간증 및 영상 모집

2024 여름 아웃리치가 벌써 종반(終盤)에 이르렀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러 열방으로 흩어졌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230개 팀 5,682명, 해외 146개팀 2,632명이 참가 중이다(8월 14일 기준). 일본 아웃리치를 다녀온 양현주 성도(푸른누리공동체)는 "자녀들과 함께 떠난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관련 기사 4-5면〉**.

한편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31일(토)까지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찍자, 아웃리치!'를 개최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제작한 영상을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 하면 된다. 1등 50만 원(1팀), 2등 30만 원(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의 배달앱 상품권을 준다. 위트상(5팀), 은혜상(5팀)에게는 카페 상품권을 준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의 생생한 은혜가 담긴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준다.

차세대 여름 사역 종료

2024 차세대 여름 사역을 종료했다. 포문은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지난 6월 1일(토)부터 15일(토)까지 이어진 교사강습회가 열었다. 이 주제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캠프,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름캠프를 했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여름캠프 '독대(獨對)'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어졌다.

QT를 통해 차세대의 영적 성장을 돕는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는 8월 17일(토)까지 진행했다. 차세대 QT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했다.

기독교 세계관_ 파리 올림픽 개막식 3면 **특집_** 아웃리치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4-5면 *7~8월 온누리신문은 격주 8면 제작합니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우상의 도시에 복음을 심다

사도행전 17:16~34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그 청중들의 문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전하는 노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전파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불신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하여 사도들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를 거쳐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아테네에 왔다는 것은 이교 문화의 심장부를 관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문명의 발상지로써 철학, 문학,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이 도시를 둘러보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테네의 웅장함이 감동이 아니라 탄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최고의 문학, 철학, 예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더 많은 전도는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이라는 단어는 '아고라' 입니다. 아고라는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장소입니다. 이 아고라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토론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바울을 폄하하면서도 처음 들어보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신선함에 관심을 가졌고, '아레오바고' 라는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로마 통치 아래에서 아테네가 자치 정부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의결 기구였습니다. 재판장 역할도 하고, 새로운 사상을 심의하는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 사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새로운 가르침, 복음의 소식에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 의한 초청입니다. 34절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아레오바고 관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였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전한 설교는 가장 탁월한 교차 문화적인 복음 전도의 모범입니다. 우상과 인간의 철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단 한 사람의 결신자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복음 증거는 언제나 한 영혼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회심자만 있어도 매우 값진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심고, 누군가 추수하는 일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 전파는 늘 한 번에 수만 명이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면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 사역이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의 상황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바울이 분노를 쏟아내면서 아테네 도시를 다녔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전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청중들과의 접촉점에서 나타납니다.

청중들과의 두 가지 접촉점

22~23절 말씀을 보면, 첫째,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심을 풀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꿈으로써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문을 연 것입니다. 같은 말도 긍정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바울이 아테네에 즐비한 제단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고 대화를 풀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24절).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신다"는 말은 우상 도시 한복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25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이 찾아 만날 수 있고, 인간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26~28절).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명한 시구들을 인용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교도의 시를 구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이방 철학과 우상에 가득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철학이 잘 나타나는 설교입니다.

세 가지 결론과 결단 촉구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한 이후에 세 가지 결론을 내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30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31절).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끝이 아니라 심판일 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비웃었고, 일부는 더 알고 싶었고, 일부는 믿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반응하는 세 부류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테네와 같은 많은 우상과 신전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신전과 신상은 일부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묘한 형태의 우상과 신전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언덕에서 바라본 그 도시의 우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돈의 우상, 술과 마약의 우상, 성욕과 부도덕의 우상, 정치 권력의 우상, 힘과 건강의 우상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며 품었던 거룩한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운 변론으로 바꿔 증거했던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그 청중들의 문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전하는 노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타 종교인들,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우리들의 블루스: 국가 복지 확대 속에 교회 복지가 나아갈 방향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유명 드라마에 출연해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 씨의 쇼츠(Shorts) 영상을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 발달장애가 있는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동정하거나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아 조현병을 앓기도 했다. 그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에 장애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연기를 호소력 있게 해 큰 공감을 얻었다. 쇼츠 영상에서 작가의 아버지가 "가족 없이 살 수 있어?"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정은혜 씨는 망설임 없이 "괜찮아. 국가가 있잖아"라고 대답한다. 아버지의 질문에는 '너는 장애가 있는데 돌봐주는 가족이 없으면 누가 돌봐주겠어?'라는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 짧은 찰나의 대화가 사회복지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인 나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그녀의 대답에 있었던 '국가'는 가족을 대체해서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나는 그 '국가'라는 단어가 차지한 자리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터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걸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였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부들을 돕는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 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사도들이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 구제 사역을 맡긴다. 교회의 구제 사역은 말씀 사역과 원래 한가지로 교회의 주기능이었다. 하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화되었고, 기독교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더욱 체계화되고 확대되었다. 기독교가 국교인 영국에서는 중세까지 십일조가 당연한 문화였다. 교회의 헌금이 국가가 걷는 세금보다 많았다. 교회가 관장하는 교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은 교회의 책임이었다. 교회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함께 재정적, 인적 자원 동원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일제 침략기 선교사역으로 시작된 이래 6.25 전쟁을 지나면서 외원기관과 교회의 구제 사역으로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그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모든 사회적 필요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실로 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누구를', '무엇으로',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도와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점점 더 큰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기술 발달과 전 지구적 환경오염, 기후 위기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또 고령화로 인하여 삶의 장기적 전망에서 노동을 통한 경제 활동의 한계 등으로 다양한 제도적 복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필자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19세 이상 성인 기독교인 738명으로부터 받은 설문 결과에 의하면,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에 동의하는 정도'가 5점 만점에 4.87점이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97.4점 정도의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사역은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면 좋을까? 먼저, 교회는 국가가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의 손인경 성도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씨가 부산의 한 양육시설 아이들로 구성된 관현악단과 협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1999년 온누리교회 5명의 장애 아동과 함께 '온누리사랑챔버'를 출범시켰는데 좋은 의사소통 방법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어려운 악기를 연주할 뿐 아니라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온누리사랑챔버는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교육법, 진로 개발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다른 장애인 서비스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귀한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온누리사랑챔버 오케스트라의 소식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내가 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한 목사님은 "요즘은 국가가 제공하는 정말 좋은 복지 혜택이 많다. 하지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한다.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돕는 영적 공동체는 단순한 서비스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국가가 관장하는 복지사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복지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교회는 앞으로도 여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람들의 미세한 필요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로서 새로운 영역과 방법을 열어나가며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상원 집사
(온누리세계관학교, 강남C공동체)

특별기고

파리 올림픽 개막식

기독교인들이 '사단적'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중 일부는 레코드판을 거꾸로 재생하면 사단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알려진 80~90년대 기독교 청소년 집단에서 유행했던 '백마스킹'을 기억한다. 이것이 적의 장치였다 해도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카세트테이프의 발명으로 이 음모는 빠르게 좌절되었다. 물론 많은 노래 가사들은 제대로 플레이해도 이미 아주 나빴다.

파리를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이자, 이 공연이 기념하는(죄(sin)라고 발음하는) '센강'을 따라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여행하는 것으로 꾸며진 2024년 올림픽 개막식은 '사단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사실 죄악과 충격, 변태성을 기념하는 게 이 공연의 핵심이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신성한 것을 조롱하는 신성 모독을 미화한 것이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겨냥한 조롱은 없었다. 아무리 세속적인 프랑스 예술가라도 코란이나 예언자 모하마드를 주제로 삼았다면 파리는 이미 불바다가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개막식 연출을 맡은 토마스 졸리가 시각적으로 선택한 내용에는 신중하게 고려했던 사항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그가 선택한 장면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원했다"는 말처럼 그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많은 것이 있었다. 그는 최악의 범죄자들은 무시하고 자유를 성적인 면허 수준으로 축소해서 묘사했다.

그가 묘사한 것은 최근 많은 사단적인 대중문화처럼 정확히 '사단주의'였다. 그는 인간성과 자유에 대한 특정 이상, 즉 성소수자로 표현되는 것을 내재하고 있지만, 실제 그 뿌리는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상을 기념하기로 정했다. 물론 그 이상은 사단적이었지만, 단순히 머리 없이 노래하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소름 끼치거나 최후의 만찬에 여장한 공연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불경스럽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사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야호!"하고 외치며 뛰어나오지 않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의 일은 훨씬 교묘하고, 훨씬 위험한 것으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사실 인류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져온 것은 기독교 이전의 이교 신앙이 아니라 계몽주의 세속화의 영향이었다. 신이 없는 세상을 다시 상상한다는 것은 경계가 없는 세상을 다시 상상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대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에 대한 외침은 곧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한 의식적이고 폭력적인 모독으로 바뀌었다.

최초의 백과사전을 편집한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마지막 왕을 마지막 사제의 내장으로 목을 졸라 죽일 때까지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남겼다. 개막식 공연에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상에 대한 찬사였다. 디드로는 진정한 자유란 모든 권위, 제한, 경계에 대한 반란이라고 믿었다. 젠더혁명가들도 프랑스 혁명가들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이를 믿었다. 토마스 졸리가 프랑스 문화와 역사를 짧게 요약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에 대한 비전이었다. 그러나 그가 묘사하지 못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어디로 향했고,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다. 실패한 반란, 잔인한 폭력 결국에는 더 심하고, 또 다른 폭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17세기와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혁명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객관적인 현실과 인간, 자연,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과 그 뒤를 이은 혁명은 의식적으로 모든 종류의 표준, 특히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에 구현된 표준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 미국 혁명과 비슷하게 들렸을지는 모르지만,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과 '자유, 평등, 박애'를 향한 자유로운 외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자유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신처럼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이 마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잘못되고, 궁극적으로 치명적이다. 이게 바로 오스 기네스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제약으로부터의 자유, 결과로부터의 자유, 설계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던 자유에 대한 이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실천에 옮기면 개막식 퍼포먼스에서 묘사된 것처럼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때는 개막식 공연에서 묘사된 것처럼 진리, 아름다움, 자유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티모시 D 패젯(콜슨 센터 신학자-역사신학 전공)

원문: breakpoint(20240730)

푸른누리공동체
일본

정말 최고의 아웃리치

정말 더웠던 지난 7월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우리는 휴가가 아닌 후쿠오카 아웃리치를 선택했다. 우리의 아웃리치는 특별했다. 푸른누리공동체 특성상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함께 하기에 성인 아웃리치와 참 많이 달랐다. 아웃리치 시작 직전부터 영적 공격도 심했다. 부모들에게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돌아가며 아팠다. 수족구, 고열과 각막 손상, 장염과 입천장 고름 등 정말 알 수 없는 자녀들의 크고 작은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로 더 무장했다. 7월 26일 금요일 새벽 4시, 모두 무사히 공항에 집결했다. 참 신기한 것이 아웃리치를 하는 동안 분명 아이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크게 힘들어하지 않았고, 아웃리치 사역에 기쁘게 동참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신뢰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누구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34명이 한 팀을 이룬 우리는 후쿠오카 무나카타시 지역 이형석 선교사님이 시무하는 프레즈란도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우리가 맡은 사역은 노방전도, 주일 한일연합예배와 음식 대접, 기도의 집 정비 등이었다. 18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 자녀 15명과 함께하는 사역이었기에 더욱 특별했다. 그만큼 염려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도왔다.

일본 요양원에서 일본어 찬양을 부르며 어르신들께 화관을 씌워드리는 푸른누리공동체 아웃리치팀.

아이들은 초반에는 그저 놀기 바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챙기며 다투지 않고 잘 지내주었다. 나중에는 서로를 섬기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30도가 넘는 습한 바닷가 지방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일본어로 준비해 간 찬양과 율동을 일본 어르신들 앞에서 선보인 어린 자녀팀도 있었고, 어떤 팀 아이들은 벨을 눌러도 기색이 없고, 받아주지 않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시무룩해져 집에 가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닷가 쪽으로 나가 계속 전도를 이어나갔다. 오전까지만 해도 열이 39.5도나 되는 아이와 중이염이 찾아와 힘들어했던 아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을 내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현지 어부가 오징어를 4마리나 답례로 주셨다. 여러 번 외면과 거절을 경험한지라 오징어 4마리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뜨거운 볕 아래 땀 흘리며 전도한 아이들이 전도의 기쁨을 온전히 체험했을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바닷가 마을에서 프레즈란도교회까지 20여 분이나 떨어져 있는데 한 할머니가 그 다음날 교회에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오셨다.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둔 마을의 많은 어르신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는다. 이날 예배에서는 '하나모(꽃들도)'라는 일본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일본 어르신들과 아웃리치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자녀와 함께 한 아웃리치였는데, 준비한 사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녀들이 지금도 고백한다.

"정말 최고의 아웃리치였어요!"

양현주 성도
(푸른누리공동체)

과천의왕공동체
충청남도 보은군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린다!

우리 가정이 보은 어린이 캠프에 참여한 지 3년째다. 그 시작은 '이제 아이들이 제법 컸으니 공동체 아웃리치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차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길'에 초대하셨다. 그리고 함께 꿈꾸게 하셨다. 그동안 두 번의 아웃리치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식구들과 친밀함이 생겼다. 우리 가정이 공동체에 조금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된 아주 큰 영양분이다. 지난해 아웃리치를 마치고 4학년과 1학년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내년 아웃리치도 꼭 가야 한다"고 미리 선포할 정도로 귀한 시간이었다.

올해 보은 아웃리치 날짜가 정해졌다. 우리 부부가 섬기는 초등부 캠프와 겹치지 않고, 아이들의 부서 캠프와도 겹치지 않게 날짜가 딱 맞춰졌다. 정말 감사했다. 올해도 3주 연속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섬김 분야를 나누는 중에 함께 보은 어린이 캠프를 준비하는 양재온누리교회 유아부에서 내게 꿈땅 어린이들의 소그룹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긴 하지만 소그룹을 따로 맡지 않고 예배팀 교사로 섬기고 있기에 부서 강습회 때 소그룹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걸 할 일도 없을 텐데 왜 들어야 하는 걸까?' 의문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역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을 하나도 버림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과천의왕공동체와 양재유아부 교사들이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보은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다.

보은 어린이 캠프에서 아이들과 인사하는데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아이들이 캠프에서 좋은 기억이 있기에 올해도 참여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캠프에 참여했던 예수은혜교회의 간증이 나의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예수은혜교회는 지난해 캠프에 처음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고 한다. 그런데 캠프를 다녀온 아이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교회에 도전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캠프에도 당연히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셨다. 캠프 2일 차 점심에는 예수은혜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으로 즐거운 식사를 했다.

양재온누리교회 유아부 선생님들이 캠프의 큰 부분을 진행하셨다. 팀빌딩, 예배 찬양, 소그룹, 드라마, 식사 등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진행되도록 애써주신 선생님들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다. 각자 부서 캠프 준비로 매우 바빴을 텐데 보은 어린이 캠프까지 준비하느라 애쓰신 그 수고가 아이들의 기도와 고백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는다.

보은 어린이 캠프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간증과 고백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 중 가장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산동교회의 이상규 목사님께서는 아이들 1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었다. 그런 목사님께서 보은 어린이 캠프 저녁 집회에서 기도회 마무리를 해주셨다. 아이들에게 회개하도록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도록 이끌어주셨다. 기도회 내내 목사님의 간절함이 느껴져 그 자리에 있었던 교사와 공동체 지체들 모두 함께 더 큰소리로 기도했던 것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보은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차세대 교사들과 과천의왕공동체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린다. 내년 보은 어린이 캠프를 한 번 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 본다.

허정임 성도
(과천의왕공동체)

갈렙청년부
제주도

가장 큰 행복 '복음'

대학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와 처음 맞는 여름 아웃리치였다. 갈렙청년부에서 처음 제주 아웃리치팀이 만들어지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팀장으로 세워졌다.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에 걸쳐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용수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현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선교팀 방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팀을 기다려주셨다.

청년 열네 명으로 구성된 아웃리치팀이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잔치와 청소년 사역, 전도사역, 주일예배 섬김 등을 나눠서 준비했다. 많지 않은 인원이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부족함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기로 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준비시간을 채워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씩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다음 날 예정된 마을잔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다. 그런데 계속된 비 예보로 얼마나 많은 어르신이 회관에 나오실지 장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화관에서 어르신들과 노래하며 춤추는 갈렙청년부 제주도 아웃리치팀.

아웃리치 둘째 날, 강력한 비 예보가 있었던 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햇빛이 쨍쨍했다. 날이 좋아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준비한 삼계탕 대접은 물론이고, 장수 사진 촬영과 미용 사역,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사라지고,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아웃리치 셋째 날, 청소년 사역과 전도사역이 계획된 날이었다. 청소년 12명이 함께했는데 공만 있어도 몇 시간이고 뛰어노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체력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해줘서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 지역 선교사님과 함께 준비한 전도사역은 비 소식으로 인해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조를 이뤄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신(多神)을 섬기는 제주도에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전도용품을 전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지역임에도 지치지 않고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 온 장로님과 권사님이 앞장서서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땀으로 꽉 찬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블레싱을 했다. 짧았던 아웃리치 기간을 회상하며 사진첩을 만들었고, 팀원들이 편지를 작성해서 선물로 드렸다. "아웃리치 팀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아웃리치 마무리 시간에 천국 앨범을 선물로 받아 정말 큰 은혜였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사모님과 "내년에도 만납시다"라고 인사하시는 목사님 덕분에 팀원들 모두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주일예배 특순 섬김을 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다. 제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평화의 땅,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역사가 계속 있기를 기도할 것이다.

최인헌 형제
(갈렙청년부)

SNS청년부
경상남도 고성군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웃리치 팀장 제안을 받았을 때 기대감보다 걱정이 앞섰다. 과연 내가 팀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처음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기면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본부팀을 구성할 때 여러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신청 인원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 교통편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점차 '하나님이 왜 나를 아웃리치 팀장으로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그 무렵 화요성령집회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직접 답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을 계산해놓고 부르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능력은 다름 아닌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의 부담이 사라졌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통이나 숙소, 사역 내용까지 산처럼 느껴졌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에 의해 준비되고, 해결되었다. 예산 문제도 후원 등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셨다.

SNS청년부 고성 아웃리치팀이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교회에 가끔 놀러 오는 중·고등학교 남자아이들 20명과 함께 2박3일 동안 수련회 형식의 청소년 사역을 했다. 이 사역을 위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고, 아이들이 좋아할 요리 교실, 축구 교실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역 초반에는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봤더니 우리의 걱정이 무색했다. 아이들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좋았고,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아이들도 많았다. 곧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 명 한 명과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보이는 활동은 축구 교실이었다. 아웃리치 팀원 중에 축구팀 코치님이 계셔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더 깊은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 팀원 한 분의 귀한 후원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축구유니폼을 선물할 수 있었는데, 유니폼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팀원들도 기쁨을 느꼈다. 아웃리치 둘째 날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전도지 〈최고의 행복〉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말해주었을 때 거부반응을 보일 거라는 걱정과 달리 경청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아이도 있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배웠다. 준비해 간 사역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더운 날씨로 인해 팀원들의 불평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며 내 힘으로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는 것이 교만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뿐임을 새삼 배웠다. 아이들을 위해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배혜란 자매
(SNS청년부)

맛있는 말씀 해설

"…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시 16:11)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기쁨은 흉내나 억지가 아니다. 위선적 기쁨의 효과는 미미하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에 위력이 있다. 〈시편〉 16편 11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는 앞부분의 표현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미래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뉘앙스로 느껴진다. 표준새번역으로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지칭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신다는 뜻이라기보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요 14:6)이라고 말씀하신 맥락과 같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을 알기 위한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누구'를 제대로 아는 과정이다. 즉,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본받으면서 그분을 닮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거나 무엇을 알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결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비뚤어질 가능성이 크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람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마 7:11)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를지라도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리라 확신하기에 미래를 지나치게 궁금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쟁이에게 점괘 받는 식의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신앙이 퇴색되지 않는다.

본문 중반부에 나오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를 표준새번역에서의 표현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로 읽으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순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결과를 초월한 기쁨이 가득해진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자체가 샘솟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훗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의 수가 3천 명이나 더하게 된 그때 인용한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다(행 2:28). 베드로는 이 본문의 '주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의미를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 28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라고 나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자체기에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으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표준새번역으로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사 풀과 물이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시 23:1~2),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언제나 풍성히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시 1:1),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사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그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뼈마디에 힘을 주사 견고하게 하시고 물 댄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돌보시는 주님(사 58:11)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혹시 최근에 기쁨이 소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말씀에 비춰 점검해보라. 나는 과연 결과에 연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과정에 충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말이다. 결과에 초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에 충실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비결이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재림의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8월 19일~25일
〈열왕기하〉 25:18~30
〈데살로니가전서〉 1:1~5:11

묵상포인트 1: 〈열왕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로 끝난다. 유다 패망 이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묵상하자.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종교·정치 지도자들과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니 그들을 다 죽인다. 유다 총독이 된 그달리야는 남은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하리라고 설득하지만, 반바벨론파 사람들이 암몬 왕의 사주로 그달리야를 죽인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석방된다. 이는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다.

묵상포인트 2: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 약 3주 동안 짧게 머물며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은 편지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 한다.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자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자의 모습을 묵상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바울 일행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들이 '소망, 자랑의 면류관, 영광, 기쁨'이 된다고 전한다.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고난 중에 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바울은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흠 없이 거룩하기를 간구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포기해선 안 된다.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바울은 배운 대로 더욱 힘써 행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며, 색욕을 따르지 않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룩함'이 곧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는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외부 사람들 앞에서 단정히 행해야 하며, 궁핍을 겪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일해야 한다. 우리가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살아 있는 성도들이 끌어 올려져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에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열왕기〉의 마지막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초보자들임에도 믿음 생활의 본이 되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면에서 본이 되기 위해 실천할 일들을 정해 보자.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다. 믿음 성장을 위해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수고를 감당할 대상이 누구인가? 한 영혼의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쓰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언어와 행실에서 성결을 추구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쓰자.

/ 〈생명의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세 자매를 위해서!

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폴리나(13세), 보제나(11세), 안나(4세)는 지난해 11월 중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세 자매가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하고 부끄러워하며 센터를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어느새 매일 센터에 들러 그림도 그리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폴리나는 멋진 만화를 척척 그려낼 정도로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보제나는 출근하는 엄마를 대신해 집 청소와 동생 돌보기를 야무지게 해내는 아이입니다. 네 살 안나는 두 언니의 살뜰한 돌봄을 받는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세 자매의 부모님은 무슬림인데, 기독교 배경인 군산M센터 활동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아직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군산M센터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도록 돕기 위해 한국어와 수학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조심스러운 거절 의사를 전해 받은 상황입니다. 세 자매가 한국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부모님이 아이들의 센터 활동과 예배 참여에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자매의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김은혜 선교사(군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콘솔라토르싱어즈 '찬양음악회'

8월 31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콘솔라토르싱어즈'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찬양음악회'가 오는 8월 31일(토)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콘솔라토르싱어즈'는 라틴어로 '위로자'라는 뜻으로 온누리복지재단과 협력하는 단체다. 콘솔라토르싱어즈에서는 음악회 관람이 어려운 병원, 미자립교회,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찾아가 찬양과 클래식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찬양음악회'에서는 국내외 최정상 크리스천 성악가들이 특별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온사랑합창단'(지휘 최경열)도 특별출연한다. 공연 후원금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에 기부한다. 입장권 문의: 010-3774-1121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9월 3일까지 아이스쿨, 전화 신청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9월 3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은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7만 원.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에서는 '다학제팀의 의사소통', '자연치유와 미술치유', '영적돌봄의 변화와 전망', '가정 호스피스'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9월 17일은 추석, 9월 24일은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로 휴강한다.

계좌: 하나은행 573-910007-15004 (예금주: 호스피스)

문의: 010-3412-7966

CGN '메시지트립' 참가자 모집

기독 OTT '퐁당' 2.0 론칭 이벤트도

CGN 성지순례여행 '메시지트립' 참가자를 모집한다(그리스, 튀르키예 코스). 1차 여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2차 여행은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3차 여행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1차 이영철 목사, 2차 김동문 선교사, 3차 이익상 목사가 인도한다. 참가비는 1차 353만 원, 2~3차 373만 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천지투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CGN이 지난 8월 1일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기독 OTT '퐁당' 2.0 버전을 정식 론칭했다.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8월 25일까지 한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스토어에서 퐁당 2.0을 설치한 다음(기존 사용자는 기존 앱 사용 가능) 사용 경험과 응원 메시지를 이벤트 페이지(fondant.kr)에 남기면 된다.

아빠(남성)의 행복을 찾아서!

'53기 행복반 참가자' 모집, 9월 3일 개강

53기 행복반(남성)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행복반은 아빠(남성)들의 아픈 과거를 소그룹 안에서 고백하고, 서로 지지해줌으로써 과거와 화해하고, 자존감을 세우는 회복프로그램이다. 53기 행복반은 남성만 신청할 수 있다. 교재는 〈뒤늦게 찾아온 행복〉(두란노, 성주명 저)이다.

53기 행복반에서는 성주명 장로와 성아나 권사가 '인격 장애와 충동적 행위 형성'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서와 회개를 경험하고, 깊은 회복과 성장을 하고 싶은 남자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6761-4350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평택과 양지온누리교회 연합으로 진행되는 본부 174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평택온누리교회와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9월 7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31-331-8196

'엘라이프' 참가자 모집

8월 31일부터 매주 토 서빙고 두란노홀

회복사역본부 관계기술훈련팀에서 '엘라이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엘라이프'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생활훈련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사는 생활 습관을 뜻한다. 40일 동안 다섯가지 활동(기쁨, 기도, 감사, 운동,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을 한다.

소망 홈 어울림 축제!

새사람사역팀, 소망교도소 신우회 및 출소자 등 참석

제6회 소망 홈 어울림 축제가 지난 8월 15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새사람사역팀,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소망교도소 신우회와 출소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제6회 소망 홈 어울림 축제에서는 찬양, 정은혜 소망신우회장 사회, 김이준 장로 기도, 박종길 목사 설교, 박영록 장로(소망교도소 1대 부소장) 축사, 조명희 총무과장 인사, 정현석 목사 축도, 식사 및 교제, 조별 나눔 등이 이어졌다.

박종길 목사는 '어려운 부탁'(왕하 2:8~10)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혜 신우회장은 "소망 홈 어울림 축제가 소망교도소를 떠난 형제님들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67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167기 서빙고 큐티스쿨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회비는 1만 원(교재 제공)이다. 참가신청은 8월 23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2026-1422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8개국에서 온 이주민 30명 세례 받아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이 지난 8월 11일(일) 오후 2시 안산 온누리M센터에서 있었다. 한국,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네팔,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8개국에서 온 이주민 30명(유아 1명, 아동 1명, 성인 28명)이 세례를 받았다. 같은 날, 김포M센터는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여름 캠프 및 세례식을 했다. 이주민예배공동체 성도 5명이 세례를 받았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연합세례식을 열고 이주민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현재까지 이주민 767명이 세례를 받았다.

'치유와 기름부음 스쿨' 참가자 모집

9월 4일부터 매주 수 서빙고 콘서트홀

'치유와 기름부음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콘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치유와 기름부음 스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의미, 중요성', '아플 수 없는 이유' 등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이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9월 1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7388-9900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본부 133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9월 4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NGO 더멋진세상, 라오스 위생 보건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에서 9월까지 '라오스 위생 보건 캠페인'을 실시한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라오스 위생 보건 캠페인에서는 까시마을 주민들에게 세탁 세제, 피부 연고, 빈대 치료제 등을 지원한다. 라오스 까시마을 주민들은 세탁 세제를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물로만 빨래하는데 이로 인해서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의: 02-2271-2248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8월 입교자

■〈하늘〉

김 규 040407 원희경 050421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효 정현석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진선미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신연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종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랜디빼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싱투아마눕 사가르 양현수 유알렉세이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장광석 정욱진 정요한 제인량
존 굴레이즈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식 권예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민수 김승희 김예닮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현경 김홍미 나가노
마사토 남 혜 문수진 문진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린 방진아 서예찬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우승희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미진 이민규
이선혜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정민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창모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전미연 정기은
정상원 정성민 정연영 정은영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우현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차선일 최강호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세라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흥균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자엽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학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래 손태용
송기선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석순
정연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주성대 주재량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상진
하주헌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대행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 찬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슬기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보화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서린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안성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조정호 최성석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성은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여진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광고

■ 결혼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김영호, 곽남지(파주세광교회)의 아들 김나단(예능교회)
홍승철, 이재희(분당횃불교회)의 딸 홍슬기(온누리교회)

■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8/3(토) 도곡 서지연 성도 모친상 고 김정남
8/3(토) 브릿지33 최혜원 성도 모친상 고 조정숙
8/3(토) 동대문중랑 최순연 권사 모친상 고 권오남
8/3(토) 고양은평 손진일 집사 모친상 고 박갑순
8/4(주일) 브릿지33 이동규 성도 부친상 고 이태식
8/5(월) 강촌 고 이선주 성도
8/5(월) 김포 김근태 집사 빙모상 고 김용임
8/6(화) 서초C 윤경희 권사 부군상 고 이광훈
8/6(화) 노원 원영조 성도 모친상, 유남옥 성도 시모상 고 이소자
8/8(목) 강남C 이석동 집사 부친상 고 이학준
8/8(목) OCC 남현정 권사 모친상, 이학철 집사 빙모상 고 이미자
8/8(목) 강남B 송민영 성도 모친상 고 전순이
8/9(금) 일산파주 박경남 성도 모친상 고 김순임
8/10(토) 중종로 박윤희 성도 모친상 고 한복순
8/10(토) 동대문중랑 임동구 성도 부친상 고 임현택
8/11(주일) 강남E 박수현 집사 모친상 고 김혜숙
8/11(주일) 강남A 이용재 성도 부친상 고 이경훈
8/13(화) 강남D 정동명 성도 모친상 고 김남숙
8/13(화) 강남B 김철규 성도 부친상 고 김헌구
8/13(화) 서초A 고은경 성도 모친상 고 박윤정
8/13(화) 강남A 한용수 집사 부친상 고 한동성
8/13(화) 마포 이상봉 성도 부친상 고 이동우
8/14(수) 양천 황의관 집사 모친상, 이은주 권사 시모상 고 유희월
8/14(수) S브릿지 조윤주 성도 부친상, 조지원 성도 부친상 고 조영환
8/14(수) 김포 이숙향 집사 모친상, 김영삼 성도 빙모상 고 이희례
8/15(목) 분당B 김재언 성도 부친상 고 김영일
8/15(목) 마포 남주헌 집사 모친상 고 김매호
8/15(목) 성동광진 박미희 집사 모친상 고 이복순
8/16(금) 서대문 오상진 집사 부친상, 김용희 권사 시부상 고 오세균
8/16(금) 성북 송정숙 권사 모친상, 최주관 장로 빙모상 고 정순이